

일반 성인 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 및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양동현^{1*}, 이무식^{2*}, 홍지영^{2*}, 배석한^{2*}, 장민영^{3*}

^{1*}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2*}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e-mail: jangmy0819@hanmail.net

Comparison of Health Behaviour and Medical Utilization between Citizen & Soldier Study

Yang Dong Hoen^{1*}, Lee Moo Sik^{2*}, Hong Jee Young^{2*}

Bae Seok Han^{2*}, Jang Min Young^{3*}

^{1*}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Graduate school of
Ko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반 성인남성과 직업군인의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에 대해서 2005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획득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전체조사 대상자는 8,384명으로 21세~55세의 일반성인남성과 직업군인만을 선정하였으며, 직업군인은 76명, 일반 성인 남자는 8,308명이었다. 보건의식 행태 분포에서 보면 현재 흡연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높고, 주관적 체격인식은 일반인의 경우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 인지하는 비율이 직업군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는 일반인이 오히려 직업군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는 평균 연령($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침상외병일수는 직업군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월간 결석, 결근일수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월간 결석, 결근일수($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연간 임원이용율은 일반인이 높았으며, 평균 재원일수, 건당 평균 임원기간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길었다. 2주간 외래 이용율은 일반인이 17.2%, 직업군인이 21.6%로 직업군인의 외래이용이 많았고, 평균 외래이용 횟수에서도 일반인이 1.92, 직업군인이 2.44로 직업군인이 많았다. 이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종류에서는 일반인은 의원급이, 직업군인은 병원급의 외래이용이 많았고 2주간 약국 이용율은 직업군인이 16.2%로 일반인 22.0%에 비하여 낮았다. 연간 사고 및 중독 발생자율은 직업군인이 9.5로 일반인 7.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 및 중독 발생횟수에서는 일반인이 직업군인에 비하여 높았다. 의도성별 분포($p<0.05$), 주치료기관($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 보건의식행태, 건강수준의 분석 및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일반 성인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직업군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1. 서론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측정지표는 의료필요의 판단 주체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와 의료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의료이용자가 비용지불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신체적 이상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주관적 인식하의 필요를 나타내며, 후자는 의료전문가가 현존하는 의료지식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어느 기간에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필수적인 의료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장동민, 1996 ; Jeffers 등, 1971).

건강행태는 순환기 질환, 각종 암 등 주요 만성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생활습관이 52%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의 생활습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간의 건강행위는 쉽게 변화되지 않으므로 성인병 이환율이 낮으며, 성인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성인 이전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교정, 즉 좋은 건강행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문상식 등, 2001). 따라서 군의 의료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자체의 내용은 일반 의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군진의

학에서는 주둔지에서의 유해(위험) 평가 및 예방, 적절한 의료 제공을 위한 주둔지 이동 및 배치, 군사적 직업성 노출에 의한 질병 및 손상의 임상적 관리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이무식 등, 2008).

이렇듯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와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의 건강행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로서 제시된 병사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연구나, 정신 건강상태에 따른 적응연구 혹은 건강증진 행위, 정신 건강과 군 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또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지역적 보건행태조사나 비만과 관련된 보건 의식 행태 등에 치우쳐 있어 직종별 차이에 따른 보건 의식 행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 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분포를 비교하여, 향후 직업군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5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획득하여 일반성인 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 의식행태와 질병현황 비교를 위해서 21~55세의 남자를 일반 성인으로 직업군인은 직업란에 표시된 경우에만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일반성인은 8,308명, 직업군인은 76명으로 8,384명이 해당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ver 13.0 한글판)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건 의식 행태, 주관적 건강수준, 2주간 이환일수, 2주간 치료일수, 월간 침상와병일수, 월간결석·결근일수, 연간 미 치료·치료 지연율 및 이유, 연간 입원이용 관련현황, 2주간 외래이용현황, 2주간 약국이용현황 및 한방서비스 이용현황, 연간사고 / 중독발생현황, 사고 및 중독의 활동별 분포를 각각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t-test 및 χ^2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전체조사 대상자는 8,384명으로 21세~55세의 일

반 성인 남자와 직업군인은 76명, 일반 성인 남자는 8,308명이었다. 연령은 일반인이 41세~50세가 2,732명(32.6%)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군인은 31세~40세가 31명(40.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 | 일반인 명 (%) | 직업군인 명 (%) |
|-----------|---------------|--------------|---------------|
| 연령 | 21세~30세 | 2,021 (24.4) | 24 (31.6) |
| | 31세~40세 | 2,663 (32.1) | 31 (40.8) |
| | 41세~50세 | 2,715 (32.6) | 17 (22.4) |
| | 51세이상 | 907 (10.9) | 4 (5.3) |
| 결혼상태 | 미혼 | 2,345 (28.1) | 14 (18.4) |
| | 유배우 | 5,644 (68.1) | 60 (78.9) |
| | 사별, 이혼 | 317 (3.8) | 2 (2.6) |
| 교육수준 | 무학 | 23 (0.3) | 0 (0) |
| | 초등학교 | 344 (4.1) | 0 (0) |
| | 중학교 | 649 (7.7) | 0 (0) |
| | 고등학교 | 3,331 (40.0) | 24 (31.6) |
| 의료보장 | 대학이상 | 3,958 (47.8) | 52 (68.4) |
| | 지역의료 | 3,590 (42.8) | 0 (0) |
| | 직장의료 | 4,718 (57.2) | 76 (100) |
| 월가구소 득 | 100만원이하 | 708 (11.5) | 0 (0) |
| | 101~200만 원 | 2,105 (33.5) | 25 (33.0) |
| | 201~300만 원 | 1,781 (28.5) | 27 (35.5) |
| | 301만원 이상 | 1,660 (26.5) | 24 (31.5) |

3.2. 보건 의식 행태

보건 의식행태 분포에서 보면 일반인과 직업군인의 평균 연령은 일반인이 38.25세로 직업군인 35.57세보다 높았으며, 현 흡연상태는 일반인이 68.8%로 직업군인 70.0%에 비하여 낮았다.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는 일반인이 53.6%로 직업군인 4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인의 보건 의식행태는 평균 연령($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2] 보건의식행태분포

단위 : 명

| | 일반인 명=8,308 | 직업 군인 명=76 | t/x ² (p) |
|-------------|-----------------|------------------|----------------------|
| 평균 연령 | 38.25 ±9.309 | 35.57 ±8.434 | 2.500(0.012) |
| 흡연여부 | | | |
| 현재 매일 피움 | 5,342 | 53 | 1.015(0.602) |
| 가끔 피움 | 374 | 0 | |
| 비흡연 | 2,592 | 23 | |
| 성인 평생흡연율 | | | |
| 5갑 미만 | 274 | 0 | 1.690(0.452) |
| 5갑 이상 | 6,737 | 69 | |
| 피운적 없음 | 1,297 | 7 | |
| 평생 음주경험 | 7,959 | 73 | 0.007(0.933) |
| 지난 1년간 체중조절 | | | |
| 체중 줄이려 노력 | 2,476 | 21 | 0.645(0.886) |
| 체중 늘리려 노력 | 947 | 7 | |
| 현재중 유지 | 1,030 | 7 | |
| 노력하지 않음 | 3,855 | 41 | |
| 평소 스트레스정도 | | | |
| 대단히 많이느낌 | 615 | 0 | |
| 많이 느끼는 편 | 2,476 | 10 | 7.395(0.060) |
| 조금 느끼는 편 | 4,445 | 62 | |
| 거의느끼지않는편 | 772 | 4 | |

3.3. 월간침상와병일수

월간 침상와병일수는 일반인이 0.23%로 직업군인 0.3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월간 결석, 결근일수는 일반인이 8.87%로 직업군인 1.50%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p<0.05)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3].

[표 3] 월간침상와병일수, 월간결석,결근일수 단위 : %

| | 일반인 | 직업군인 | t(p) |
|------------|---------------|---------------|---------------|
| 월간 침상와병일 | (0.23±1.718) | (0.35±2.561) | -0.608(0.543) |
| 월간 결석, 결근일 | (8.87±26.258) | (1.50±10.509) | 2.413(0.016) |

3.4. 연간입원률

연간 입원이용율은 지난 1년간 입원한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7.1%, 직업군인이 4.1%가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직업군인에 비해 일반인이 높게 나타났다. 입원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일반인은 병원이 72.2%였으나 군인은 100% 병원을 이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이유로는 일반인은 사고 및 중독(52.6%)이, 직업군인은 질병(66%)으로 인한 입원이용이 많았다 [표4].

[표 4] 연간 입원이용 관련 현황

단위: 명(%)

| | 일반인 명 (%) | 직업군인 명 (%) | t/x ² (p) |
|--------------|--------------|---------------|----------------------|
| 연간입원이용률 | 590 (7.1) | 3 (4.1) | 1.009(0.313) |
| 평균이용건수 | 1.18 | 1.00 | 0.333(0.7939) |
| 평균재원일수 | 14.539 | 25.0 | 0.016(0.987) |
| 건당평균 입원기간 | 17.09 | 25.0 | - |
| 입원 의료기관 | | | |
| 병원 | 426 (72.2) | 3 (100) | 2.658(0.915) |
| 의원 | 164 (27.8) | 0 (0) | |
| 입원이유 | | | |
| 질병 | 276 (46.8) | 51 (66.7) | - |
| 사고 및 중독 | 310 (52.6) | 25 (33.3) | |
| 기타 | 3 (0.6) | 0 (0.0) | |

3.5. 이용한 외래의료기관의 종류

2주간 외래 이용율은 일반인이 17.2%, 직업군인이 21.6%로 비교적 직업군인의 외래이용이 많았으며, 평균 외래이용 횟수에서도 일반인이 1.92, 직업군인이 2.44로 직업군인의 평균 외래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이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종류에서는 일반인은 의원급이, 직업군인은 병원급의 외래이용이 많게 나타났다 2주간 약국 이용율은 직업군인이 16.2%로 일반인 22.0%에 비하여 낮았으며, 평균 이용횟수는 직업군인이 1.25회로 일반인 1.45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간 한방 이용률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표 5] . 2주간 외래이용, 약국이용, 연간한방이용률 단위 : 명(%)

| | 일반인 명 (%) | 직업군인 명 (%) | t/x ² (p) |
|------------|--------------|---------------|----------------------|
| 2주간 외래 이용율 | 1,428 (17.2) | 16 (21.6) | |
| 평균횟수 | 1.92±1.857 | 2.44±2.78 | -1.108(0.268) |
| 보건의료기관종류 | | | |
| 병원 | 305 (22.4) | 9 (56.3) | 19.254(0.057) |
| 의원 | 1,053 (77.6) | 7 (43.7) | |
| 약국이용 | 1,828 (22.0) | 12 (16.2) | 1.203(0.229) |
| 평균횟수 | 1.45±0.98 | 1.25±0.452 | -1.108(0.268) |
| 연간한방이용률 | 1,795 (21.6) | 22 (28.4) | -1.398(0.162) |

3.6. 연간 사고/중독 발생자율

연간 사고 / 중독 발생자율은 직업군인이 9.5%로 일반인 7.9%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의도성별 분포는 일반인은 타인의 폭력이 1.5%인 반면 군인은 1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치료기관은 일반인은 병원 일반병실 입원이 많았으나, 직업군인은 병원외래가 많았다. 의도성별 분포(p<0.05), 주치료기관(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표 6] 연간사고/중독발생자율 단위 ; 명(%)

| | 일반인 명 (%) | 직업군인 명 (%) | t/x ² (p) |
|--------|--------------|---------------|----------------------|
| 발생자율 | 656 (7.9) | 7 (9.5) | |
| 발생횟수 | 1.07±0.29 | 1.00±0.00 | -0.512(0.609) |
| 의도성별분포 | | | |
| 불의사고 | 644 (98.2) | 6 (83.3) | 8.131(0.017) |
| 의도적자해 | 2 (0.3) | 0 (0.0) | |
| 타인의폭력 | 10 (1.5) | 1 (16.7) | |
| 주치료기관 | | | |
| 응급실이용 | 38 (5.8) | 2 (28.6) | |
| 의원외래 | 194 (29.5) | 0 (0.0) | |
| 병원외래 | 128 (19.6) | 3 (42.9) | 25.017(0.001) |
| 병원입원 | 233 (35.5) | 1 (14.3) | |
| 중환자실 | 2 (0.3) | 0 (0.0) | |
| 기타/모름 | 45 (6.8) | 1 (14.3) | |
| 의원입원 | 16 (2.5) | 0 (0.0) | |

4. 고 찰

본 연구는 일반 성인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 및 질병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보건의식 행태 분포에서 비만에 따라 체중을 줄이려하는 노력이 일반인 53.6%, 직업군인은 45.5%였으며 평균 연령(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0세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부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만도 조사시 남성평균 체질량 지수가 24.68kg/m²였으며, 평균 연령 35.57세 기준으로 할 때 비슷하였다. 비만율을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성의 비만율은 32.4%이었으며(보건복지부, 2002) 본 연구결과에서는 주관적 일반 성인남성의 비만율은 33.6%, 그리고 직업군인의 비만율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는 일반인이 53.6%로 직업군인 45.5%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남성과 직업군인을 비교

해 본 결과 일반인이 58.1%, 직업군인이 73%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반인 38.25세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은 직업군인 35.57세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침상와병일수는 일반인이 0.23%로 직업군인 0.3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월간 결석·결근일수는 일반인이 8.87%로 직업군인 1.50%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무식(2008)에 따르면 군 소속별 침상와병일수와 결근일수는 해군이 연간 15.5일, 18.8일로 가장 길었으며, 계급별로는 병사의 경우 병장이 10.8일, 15.4일로 가장 길었고, 간부의 경우 부사관이 13.0일, 17.1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침상와병일수와 결근일수가 연간 43.1일, 45.1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군 특성상 하급자의 경우 부대기본 임무수행과 함께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침상와병일수와 월간 결석·결근일수가 길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연간 입원 이용율은 일반인이 7.1%, 직업군인이 4.1%가 이용하여 직업군인에 비해 일반인이 높았으며, 평균 재원일수, 건당 평균 입원기간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길었으며, 입원이유로는 일반인은 사고 및 중독이, 직업군인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용이 많았다.

2주간 외래 이용율은 선행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양현진, 2003) 연령별, 거주지별,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로 외래이용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난 2주간 외래이용율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인과 직업군인과의 2주간 외래이용 현황에서는 일반인이 17.2% 직업군인이 21.6%로 많았다. 이는 데이터의 분석방법상 단면연구를 시행하였고, 건강수준의 변수 특성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2주간 약국 이용현황 / 한방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약국 이용율은 직업군인이 16.2%로 일반인 22.0%에 비하여 낮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연간 한방 이용율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 부대의 특성상 대대 / 연대급 / 사단급 의무실에서 진료 후 투약을 받음으로써 별도로 약국을 이용할 기회가 없는 편이나, 한방서비스

가 약국 이용율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군 부대 내 한방과가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격렬한 운동 및 훈련 등으로 인해 한방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연간사고 / 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직업군인이 9.5%로 일반인 7.9%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고 의도 성별 분포($p < 0.05$), 주치료기관($p < 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군 장병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나, 건강의 실천행위 지수라 할 수 있는 흡연, 스트레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침상화병일수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월간결석 및 결근일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군 부대 특성상 개인 기본 임무수행에 따른 진료의 접근성 및 치료보장여건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수들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할 수 없었고, 데이터의 성격상 단면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이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참고문헌

- [1] 이무식 등. 군의료개혁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2008. 2.
- [2] 국방부 보건정책팀 . 군 간부 건강 실태 조사 보고서, 2005:1-45.
- [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 성인보건의식행태. 2006.
- [4] 국군 의무사령부. 의무 VISION 2015. 2007.
- [5] Ballweg JA, Li L. Comparison of habit of military personnel with civilia population. Public Health Report1989: 104(5):498-509.
- [6] Base closure and realignment report 2005. May 9. Medical Joint Cross Service Group, HQ US Air Force.
- [7] Belloc NB, Breslow L. Relation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 Prev Med .1972:1:409-419.

- [8] Gochman DS. Health Behavior, Plenum Press, Appl Physiol 2002; 86(4): 347-354.